'제35회 무등의림상 봉사상' 최범채 원장

광주시의사회…공로상 양동호 원장
학술상 김형준·임경준·김병석·장철호
26일 '광주의사의날' 행사서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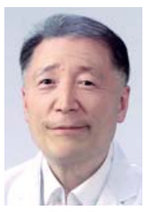
최범채

양동호

김형준

임경준

김병석


장철호

광주시의사회는 '제35회 무등의림상 봉사상' 수상자로 최범채 광주 시엘병원 원장을 선정했다.

13일 광주시의사회에 따르면 무등의림상 운영위원회는 35회 무등의림상 봉사상 수상자로 최범채 광주 시엘병원 원장을, 공로상 수상자로 양동호 연합외과의원 원장을 각각 결정했다.

학술상 수상자는 김형준 전남의대 혈액내과 교수와 임경준 조선의대 마취통증학과 교수, 김병석 광주기독병원 부원장, 장철호 광주보훈병원 진료부장이다.

무등의림상은 광주 지역 의료계와 학술 발전에 공헌한 의사에게 수여된다.

최범채 원장은 2014년부터 이어온 몽골 국립의과대학 장학금과 후원으로 수많은 청년들의 꿈을 지켜왔다.

2017년부터는 몽골 의대생들에게 광주에서 직접 배우고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해외 의료진이 한국에서 난임 의술을 배우고 돌아가 각국에서 새 생명 탄생을 돕고 있다.

또 몽골보육원, 농아학교 등의 후원도 꾸준히 하고 있다.

양동호 원장은 2020년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장을 맡아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공중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1년 3월까지 광주시의사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불우이웃과 더불어 사는 봉사적 삶을 실천했다.

김형준 교수는 33년간 백혈병 환자 치료와 연구에 매진해 국내외 학술지에 약 400편의 논문을 발표, 혈액종양학 연구의 국제성 위상을 높였다.

임경준 교수는 조선대 의학연구원장 재임 당시 기초의학, 임상의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 간 상호교류를 통해 통합적인 의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김병석 부원장은 '대장암 완치 프로젝트' 공저로 참여해 전문 진료 분야를 대장암 치료 영역으로 확장하고, 대장·항문 질환의 조기 진단과 예방 교육 활동을 주도했다.

장철호 광주보훈병원 진료부장은 약 20년에 걸쳐 국제학술지에 1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한국을 빛낸 사람들'에 3회 등재되는 등 지역 이비인후과 발전과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광주시의사회 무등의림상 운영위원회는 오는 26일 조선대 부속중학교 운동장에서 '제31회 광주의사의 날' 행사를 열고 시상식을 갖는다.

/기수희 기자

전남대 학부생들, 국제학술지 잇단 게재 '주목'

조용호 수의대생 면역·뇌 기능 규명
강지현·문진영 의대생 심정지 연구

조용호

강지현

문진영

전남대학교 학부생들이 잇따라 국제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13일 전남대에 따르면 조용호 수의과대학 학생(본과 4학년·수의해부학교실)은 선천적 T세포 결핍이 학습 및 기억력 저하, 우울증, 해마의 신경발생과 시냅스 가소성 장애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연구 결과는 'Molecular & Cellular Toxicology'에 제1저자로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전남대 학술연구비 해외공동연구사업('면역결핍에 의한 뇌 해마 기능장애에 관한 행동학적 평가와 기전 연구')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필리핀 수의대 Mary Jasmin Cabillon Ang 교수팀과의 국제 공동연구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면역계 이상이 우울증이나 인지장애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향후 면역조절 기반 치료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지현·문진영 전남대 의과대학 학생(2학년)은 질병관리청 주도의 17개 병원 다기관 연구(CAPTURES) 자료를 바탕으로 심정지 발생 요인을 분석했다.

강지현 학생은 짠 음식 선호가 심정지 발생과 유의하게 연관됨을 밝혀 'Yonsei Medical Journal' 2025년 12월호에 논문을 게재했으며, 문진영 학생은 오메가-3 섭취가 심정지와 관련 있음을 규명해 'Signa Vitae' 2025년 9월호에 발표했다.

정유진 응급의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짧은 기간에 연구의 전 과정을 경험하며 학문적 성취를 이룬 것은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국제청소년연합 광주전남 '손에 손잡고' 성황

빛고을 다문화 이주민 등을 위한 외국인한가위대잔치가 열려 성황을 이뤘다.

국제청소년연합(IYF)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1일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한가위 행사인 '손에 손잡고'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내 이주민과 주민들이 함께 추석을 즐기며 공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네팔과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다문화가족 700여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전통체험부스에서 제기차기, 굴렁쇠·팽이, 투호놀이 등 전통놀이를 즐겼으며 떡메치기, 한복포토존, 전통문양 타투, 송편만들기, 글로벌유니온컬쳐센터, 국제청소년연합 등 부스 프로그램도 경험했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외국인끼페스티벌에서는 12개팀이 결선 무대에 올라 1시간 가량 K-POP 댄스, 트로트, 가요 등을 선보였다.

김진성 (사)국제청소년연합 광주전남 대표고문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지만 함께 교류하다 보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따뜻해진다. 이곳에서 마음의 온기를 담으면 지역사회가 더 따뜻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동신대 언어치료학과, 교재·교구 공모전 '전원 수상'

동신대학교는 "최근 열린 '제5회 언어치료 교재·교구 공모전'에 언어치료학과 3개팀이 출전, 모두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전은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와 ㈜학지사가 공동 주최한 전국 규모 대회로, 현직 언어재활사와 예비 전문가들이 참가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겨뤘다.

동신대에서는 백경민 학생팀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이정윤 학생팀 '알쏭달쏭 모두의 감정을 찾아서'와 김승리 학생팀 '뽑아 뽑아 범주어'가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이번 수상작들은 ㈜학지사를 통해 상품화될 예정이다.

이은경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전공지식과 창의적 역량을 발휘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목포 유달동청년모임, 어르신에 생선포 기부

목포시 유달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유달동 청년모임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200만원 상당의 조기·갈치 생선포 50상자를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탁된 물품은 목포시하나노인복지관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지원됐다.

장준혁 유달동청년모임 대표는 "작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기부가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고 따뜻한 한 끼 식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섭 유달동장은 "지역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온정을 모아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유달동청년모임은 장준혁·장용준·장성준·장진환·박상명·박상수·김현진·김사용·김만수·이동준·김현성·나상기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평소에도 목포시 각종 행사에서 배식·청소·교통 봉사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힘을 보태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조광철 코비코 대표, 동성고에 건강기능식품 후원

광주동성고등학교 출신인 조광철 코비코㈜ 대표가 2년째 후배 사랑을 실천해 눈길을 끈다.

13일 광주동성고에 따르면 최근 본교 가촌당에서 조광철 동문, 이동만 교장, 광주동성중·고 야구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식을 개최했다.

조 대표는 야구부 후배들을 지원하기 위해 1천5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홍삼)을 전달했다.

조광철 대표는 "후배들이 운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후원물품을 준비했다"며 "후배들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동만 교장은 "후배를 향한 동문의 변함없는 응원과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선배의 뜻을 본받아 받은 사랑을 나누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학교법인 유은학원 광주상업고등학교 24회 졸업생으로 지난 2000년 코비코㈜의 전신인 한국차량공업을 설립하고 자동차 적재함, 군수차량,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 부품을 생산·수출하고 있다.

/박선옥 기자

허영호 전남 사랑의열매 회장 선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전남 사랑의열매)는 13일 "제12대 회장으로 허영호(59·사진) 미림산업개발㈜ 대표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허 신임 회장은 중앙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오는 16일 이·취임식을 거쳐 다음 날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그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미림산업개발㈜와 민은산업개발㈜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2010년부터는 키우리 봉사회 사무국장과 부회장,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앞장서 왔다.

이외에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광주북구협의회 지회장, 담양군장학회 이사, 전남신용보증재단 자문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발전과 국민 소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2014년 전남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패밀리 아너에 가입하고 2021년부터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대표를 맡아 신규 회원 확충과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허영호 회장은 "회장이라는 직책을 개인의 영광이 아닌 지역사회의 부름이자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서가기보다 함께 걷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눔을 단순한 기부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日 사가대서 심포지엄 논문 발표

김일태(사진) 전남대 석좌교수는 오는 24-25일 일본 사가대학교에서 열리는 '2025년 제34회 아시안 경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논문을 발표한다.

13일 김 교수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인구동태의 변화와 인적자본개발 : 아시아의 미래경제 구축'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일본 사가대를 비롯 전남대, 중국사회과학원, 태국 까셋삿대, 스리랑카 페라데니아대학교가 공동주최하고 인도네시아 마랑주립대가 초청대학으로 함께한다.

김 교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 판례 분석과 위계적 추정 모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논문을 통해 최근 한국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판례 분석과 추정모형을 사용해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간 관계를 제시할 계획이다.

/박현진 기자

원광보건대 간호학과, 담양 수해지역 봉사

담양군은 "최근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동아리 '원로버' 학생들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2025년 농촌재능나눔 수해지역 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광보건대와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처음 추진된 협력사업이다. 활동은 지난달 13일 대덕면을 시작으로 27일 봉산면, 28일 수북면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담양=정승균 기자

결혼

▲김병인·이윤경씨 차남 성록군, 김양민·김용애씨 장녀 수아양=18일(토) 오후 2시30분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3층 펠리체홀.

▲신인수(장성 신약국)·정선미씨 차남 희진(논산 참약사다온약국)군, 박승호(아주경제 광주취재본부장)·서미애(서울신문 광주전남취재국장)씨 차녀 세원(대전 건양건강약국)양=11월16일(일) 오후 12시30분 드메르 웨딩홀 신관 지젤홀 1층(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